

저자            李富五  
(Authors)

출처            [신라사학보](#) , (2), 2004.12, 248-265 (18 pages)  
(Source)        [SILLASAHAKPO](#) , (2), 2004.12, 248-265 (18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1900>

APA Style       李富五 (2004). 新羅 葛文王考(今西龍). 신라사학보, (2), 248-265.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6/25 11:2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소개의 글

신라사 연구의 기초를 닦은 주인공들은 일제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이들의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밑거름이 되어 왔으나, 그 역할이 과소평가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또한 초기 연구자들의 글은 다소 난해하여 현대 일본어만 습득하고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신라사학회는 초기 일본 연구자들의 성과를 연차적으로 번역해 소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근대 역사학이 성립한 직후인 1890대부터 한국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통론적 고찰이나 광개토태왕비, 가야사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신라사 연구는 소홀한 편이었다. 이를 전문적인 연구분야로 개척한 학자는 今西龍이었다. 그는 29세 되던 1903년부터 東京帝國大學에서 朝鮮史를 전공하기 시작한 이후 경주 등지를 답사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신라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13년부터는 주로 경성제국대학에 있으면서 총독부의 역사편찬사업 뿐만 아니라 古蹟調査報告 등에 관여했다. 1926년부터는 《朝鮮史》 1~3편의 편수를 주도하고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간행을 위한 校訂을 담당하여 한국고대사 연구사업에 깊이 간여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신라사 연구 업적을 남기다가 1932년 6월 5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33년 그의 사망 1주기를 기념해 유고집 제 1책이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新羅史研究》(國書刊行會)이다. 이 책은 신라사를 다룬 최초의 전문 연구서로서 신라사 연구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자료이다. 본 학회에서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역자는 신라초기 지배세력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新羅 葛文王考>를 선정했다. 이는 원래 《藝文》 제13년 5호(1921년 5월)에 실렸다가 재수록된 글이다.

여기서 금서릉은 갈문왕이 異姓 追封王이라는 기존설을 부정했다. 이는 원래 왕의 살아있는 유력한 친족에 대한 位號였는데 중고기에는 추봉 왕호를 겸하다가 하대에 추봉왕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 뒤 갈문왕의 자격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설이 제출되었으나, 이 글의 실증적인 분석과 대체적인 논지는 최근까지의 연구에 바탕이 되어 왔다.

본문에서 ‘[ ]’ 표시는 역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부분이다. 또한 번역문의 검토 과정에서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先生(早稻田大學 文學研究科 博士課程)의 도움이 적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부오)

【번역】

## 新羅 葛文王考 (今西龍)

李富五\*

新羅 上代에는 왕의 아버지, 왕비의 아버지, 왕의 외조부 등이 葛文王 칭호를 가진 경우가 많다. 《三國史記》는 逸聖尼師今 15년조에 注記하여

신라에서 追封된 왕은 모두 갈문왕이라 했는데, 그 의미는 자세하지 않다.

라고 했다. 星湖 李瀾은 僊說 《星湖僊說類選》 권9 下 에서

신라시대에 異姓을 追尊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모두 갈문왕이라 했다. 本宗의 正統은 麻立干이라 했다. 葛과 麻는 經對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周禮》를 살피건대, 왕이 제후를 위해 상복을 입고 굴건을 쓰고서 끈을 동여매는데, 同姓은 麻로써 하고 異姓은 葛로써

---

\* 중산고등학교 교사

대표 논문 : 《신라 군·성[촌]제의 기원과 소국집단》, 서경문화사, 2003 ; <1~3세기 辰王의 성격 변화와 三韓 小國의 대외교섭> 《新羅史學報》 創刊號, 2004 ; <尼師今代 초기 斯盧國 干位의 성립과 분화> 《韓國上古史學報》 36, 2002의 다수

한다고 했다. 葛經의 王이라 함은 本宗과 구분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 신라시대에 처음에 王號가 없었을 때 麻立干, 尼師今은 俗語로서 지금의 君, 王의 류와 같은 것이다. 이를 역사서에서 왕이라 칭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順庵 安鼎福은 <東史考異> 《東史綱目》 附 에서

《三國史記》를 살펴보니 金富軾은 “신라에서 추봉된 왕은 모두 갈문왕이라 불렀는데 그 의미는 자세하지 않다”고 했다. 역사상에서 妃后의 아버지를 갈문왕이라 부르는 것은 나도 들은 바 있다.

라하고서 앞서 언급한 《星湖僊說》의 주장을 인용해

이는 선배 학자들의 논거에 의거한 바는 없으나, 그 의미는 일단 받아들일만 하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순암은 성호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다.

갈문왕에 대한 언어상의 신해석을 위해 우선 頤齋 黃胤錫 正祖王代의 유학자의 《華音方言字義解》의 주장을 제시해 보려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라의 追封王은 모두 葛文王을 칭했다. 東國의 方言에 죽음[死]을 ‘주근’[走斤]이라 한다. ‘葛’의 방언은 近走이고 ‘文’의 방언은 近斤이다.

黃氏의 주장은 한 두 학자의 찬동을 받았다고 들었다. 나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大正六年度古蹟調查報告》의 창녕 眞興王碑 條에서 “葛文은 ‘Kar-mun’으로 읽으며, 甘文이라는 말처럼 大(Kun)라는 말이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잘못됐던 것 같다.

이상 여러 선학들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갈문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이어서 그 문제를 다뤄보자. 《三國史記》·《三國遺事》를 통틀어 갈문왕 칭호를 가진 자는 십수명에 달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日知葛文王

儒理尼師今の 장인이다. 혹은 逸聖尼師今の 아버지라는 설도 있다. 단 《三國遺事》 王曆篇에 “逸聖尼師今은 아버지가 弩禮王 儒理를 가리킨다 의 형 혹은 祗摩王이라 한다. 妃는 △禮夫人으로서 日至葛文王의 ‘父’ ‘女’의 착오가 아닐까 이다. △△△禮夫人은 祗摩王의 딸이다. 어머니는 伊刊生夫人으로 혹은 △△왕의 부인 朴氏라 한다”라고 한 것도 글자의 오류와 착종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 (2) 許婁葛文王

婆娑尼師今の 妃인 金氏 史肖夫人의 아버지라 한다. 혹은 儒理王의 妃로서 婆娑를 낳은 사람이 朴氏 許婁王의 딸이라는 一說도 있다. 金氏 시조 闕智의 鷄林 降誕은 《三國遺事》에서는 脫解王 4년이라 하고 《三國史記》에서는 同王 9년이라 했는데, 탈해 재위 24년에는 婆娑가 繼承했으므로 과사의 妃가 金氏라는 것은 연대 물론 조작된 것이다 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許婁王은 《三國遺事》 儒理條와 婆娑條에 모두 辭要王으로 되어 있다. 辭要是 사서가 重刊될 때 許婁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또한 婆娑尼師今代에 韓岐部에 許婁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少女가 伊滄 摩帝의 少女 때문에 祗摩王의 妃가 되지 못하게 되자 婆娑王은 그를 위로해 그 位를 伊干 위로 올려 酒多 뒤에 角干이라 했다 로 삼았다는 전설이 있다. 許婁葛文王 혹은 許婁王이라

불린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더욱이 차이라든가 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이라 단정짓는다면, 이 시대에서는 부당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 (3) 摩帝葛文王

祗摩의 妃 金氏 愛禮夫人의 아버지라고 한다. 이 시대에 김씨가 있었다는 것은 그 연대와 맞지 않는다. 《三國遺事》에서 摩帝國王으로 표기된 것은 주의할 만하다 孫穆의 《鷄林類事》에서는 머리를 麻帝라고 했다.

### (4) 阿道葛文王

逸聖尼師今 15년에 朴阿道를 갈문왕으로 봉했다고 한다. 이 朴氏라는 阿道와 闕智의 자손인 金氏 阿道는 姓을 朴·金으로 달리해 이름을 전하지만, 혹은 동일인이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逸聖王의 장인으로서 阿多羅王의 외조부인 朴氏 支所禮王과 阿道는 혹은 동일인이 아닐까. 지소례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왕은 갈문왕이 될만한 사람이었다 支所禮王은 許婁王과 마찬가지로 歷代 중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 (5) 骨正葛文王

《三國史記》에는 혹은 忽爭葛文王으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伐休尼師今의 아들로써 助賁尼師今과 沾解尼師今의 아버지라 한다. 《三國史記》에 “前王[伐休]의 태자 骨正과 둘째 아들 伊買가 먼저 죽고 太孫이 아직 幼少하여 이때의 아들을 세우니, 그가 奈解尼師今이다”라고 했다. 太孫이라는 것은 두 아들 조분·침해 중에서 조분을 가리킬

것이다. 이 사서에서 조분이사금은 내해이사금의 사위라는 조건 때문에 내해의 유언에 따라 즉위했다고 기록되었다. 嫡子相續의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父子相續의 定制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신라에서 太孫이라는 것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三國史記》에서는 沾解王이 즉위하고서 아버지 骨正을 봉해 世神葛文王으로 삼았다고 한다.

#### (6) 仇道葛文王

골정갈문왕의 장인으로서 조분이사금과 침해이사금의 외조부이다. 또한 김씨 시조왕인 味鄒尼師今의 아버지이다. 《三國史記》에서는 미추이사금 2년에 아버지 구도를 봉해 갈문왕으로 삼았다고 한다.

#### (7) 伊柒葛文王

미추이사금의 외조부로서 朴氏이며, 《三國遺事》에는 伊非葛文王으로 되어 있다.

#### (8) 奈音葛文王

儒禮尼師今의 외조부로서 박씨이다. 유례왕은 助賁의 장자라 하고 조분의 妃 阿爾兮夫人은 奈解王의 딸이므로, 그의[유례왕의] 외조부는 내해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내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에 모순을 보인다.

#### (9) 巴胡葛文王

《三國史記》에서 慈悲麻立干의 妃는 舒弗邯 未斯欣의 딸이며, 자비마립간의 아들 炤知麻立干條에도 그 어머니를 서불한 미사흔의 딸이라 했다. 그리고 《三國遺事》에도 慈悲王妃는 “巴胡葛文王 혹은

未叱希角干的 딸”로 되어 있다. 未斯欣·未叱希·未叱喜[叱을 吐로 쓰는 것은 착오이다]는 일본사에서 微叱已知波珍干岐 혹은 微叱許智 伐旱이라고 표기되는 인물이다. 舒弗邯은 角干과 같고 波珍干은 海干이나 破珍干으로도 쓴다. 지금 破珍干을 破彌干으로 표기하는 것은 珍[珍]과 彌의 글자 모양이 서로 가까워 《隋書》·《北史》 등이 珍을 彌로 잘못 쓴 것을 답습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珍의 옛訓이 突의 字音에 가까웠던 것은 신라 古地名 연구에 의해 확실해졌다. 伐旱은 ‘伐’字 앞에 탈자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角干이라 하고 海干이라 하는 위계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인물은 동일한 것이다. ‘智’는 이름의 뒤에 붙는 말이다. 이 사람을 美海라고 표기한 것은 美斯欣海干을 고친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未斯欣을 巴胡葛文王으로 칭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巴胡는 미사흔의 형인 卜好인 것 같다. 복호는 《三國遺事》本篇에는 寶海라고 되어 있다. 海는 海干을 고친 것이고, 寶(po)는 卜(poc)의 po음을 나타낸 것이다. 卜好(poc-ho)는 巴胡(pa-ho)와 음이 유사하다.

### (10) 期寶葛文王

《三國遺事》에서는 소지마립간의 장인을 기보갈문왕이라 했는데, 《三國史記》에서는 乃宿伊伐干이라 했다. 또한 《三國遺事》에서는 智證麻立干的 아버지를 訥祗王의 동생 기보갈문왕이라 했다. 그런데 기보는 奈勿王의 아들로서 訥祗·未斯欣·卜好와 형제관계이다. 期寶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 (11) 翫寶葛文王

《三國史記》에서는 智證麻立干的 아버지로서 奈勿王의 손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訥祗王之 조카가 된다. 늘지에게는 미사흔·복호 외에 다른 형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三國遺事》가 지증왕의 아버지라고 한 期寶는 혹은 習寶의 아버지로 추정할 수 있다. 《三國遺事》異次頓 기사에서 元和 연간에 南澗寺 승려 一然이 지었다는 嚮香墳禮佛結社文을 인용하는 중에 이차돈의 증조부를 習寶葛文王이라 했다. 같은 책 注에 인용된 金行用 撰 阿道碑文에서는 이차돈의 증조부를 乞解大王이라 했다. 걸해대왕은 내물의 前王이므로 《三國史記》의 습보와는 시대가 맞지 않는 전혀 별개의 인물이다.

#### (12) 立宗葛文王

眞興王之 아버지로서 法興王之 동생이다. 즉 智證王之 아들이며 眞平王之 외조부가 된다.

#### (13) 福勝葛文王

진평왕비 김씨 摩耶夫人의 아버지로서 善德女王의 외조부이다.

#### (14) 飲葛文王

《三國遺事》王曆篇에서 선덕여왕의 남편이라 했다. 그러나 《三國遺事》本篇 중 唐 皇帝가 여왕에게 牧丹을 보낸 사실을 기록한 條에서 여왕은 “과인은 남편이 없다”고 했다.

#### (15) 國飯葛文王

眞平王之 동생으로서 眞德女王의 아버지이다. 《三國史記》에서는 혹은 國芬이라 했으며, 《三國遺事》에서는 國其安으로 되어 있다.

(16) △△△葛文王

진덕여왕의 외조부이다.

(17) 文興葛文王

太宗武烈王이 아버지 伊干 龍春을 追封한 것이다. 《三國史記》에서는 “武烈王 원년 4월 죽은 왕의 아버지를 추봉해 文興大王이라 하고 어머니를 文貞太后라 했다”고 한다. 《三國遺事》에서는 卓文興 葛文王이라 했으나 ‘卓’의 글자 뜻을 풀기 어렵다.

이상은 갈문왕에 관해 《三國史記》·《三國遺事》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지만, 신라의 갈문왕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략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一) 왕의 아버지. (1), (5), (6), (10), (11), (12), (15), (17) 다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4인
- (二) 왕의 장인. (1), (2), (3), (6), (9), (10), (13) 다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1인
- (三) 왕의 외조부. (2), (6), (7), (8), (9), (12), (13), (16) 다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3인
- (四) 여왕의 배우자. (14)
- (五) 不明. (4)

다만 (4)의 阿道葛文王은 支所禮王과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五)는 (二)와 (三)에 포함될 수 있다.

왕의 아버지로서 갈문왕을 칭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a) 婆娑王之 아버지라는 설이 있는 奈老, (b) 伐休의 仇鄒角干, (c) 奈解

의 伊買, (d) 基臨의 乞淑用干, ‘角’의 僞字에 [ ]이 있으며, ‘用’은 ‘角’의 잘못 일 것이다. 用浪은 정확히는 角干이다 (e) 訖解의 于老角干, (f) 奈勿의 末仇角干, (g) 實聖의 大西知角干, (h) 眞平의 銅輪 등이다. 于老角干은 《三國遺事》 王曆篇에 于老音角干으로 되어 있다. ‘音’은 ‘昔’의 착오일 것이다

왕의 장인, 즉 왕비의 아버지로서 이 칭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a) 慈悲의 未斯欣, (b) 炤智의 伊伐干 乃宿, (c) 智證의 伊伐干 登欣, ‘欣’은 許라고도 한다. ‘欣’과 ‘許’는 서로 통한다 (d) 法興王의 朴氏, (e) 眞智의 朴起烏公 등이다. 文武王 또한 그 장인[외조부의 착오인 듯함] 金舒玄을 추봉하지 않았다.

왕의 외조부로서 이 칭호가 없는 경우는 (a) 實聖의 昔登保阿干, (b) 炤智의 未斯欣, (c) 法興의 登欣, (d) 眞智의 英失 등이다. 또한 왕의 조부로서 이 칭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왕의 아버지에게는 갈문왕 칭호가 없고 장인에게는 이 칭호가 있는 사례도 있다. 眞平王의 아버지가 銅輪太子이고 장인이 葛文王 勝福인 경우가 그것이다. 奈解尼師今의 경우도 아버지는 伊買이고 妃는 助賁尼師今의 누이인데, 《三國史記》에 의하면 조부의 아버지 骨正은 갈문왕이다. 그렇지만 골정이 갈문왕이 된 것은 혹은 助賁尼師今代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에 들어가기 어렵다.

또한 하대에 갈문왕으로 기록된 경우가 한 사람 있다. 《三國史記》에서 僖康王의 妃 文穆夫人의 아버지를 갈문왕 忠恭으로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 忠恭은 元聖王의 손자인데 憲德王 9년 伊干으로서 侍中이 되었다. 동왕 14년 金憲昌의 난 때에는 角干의 位에 있으면서 왕을 위해 蚊火의 關門을 지켰는데, 이 해에 왕은 忠恭의 딸 貞矯를 맞이해 太子妃로 삼았다. 이 태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三國遺事》에는 憲德王妃 貴勝娘을 忠恭角干的 딸이라 했지만, 그 왕의 妃는 《三國史記》에서 英禮角干的 딸이라고 한 것

이 맞을 것이다. 僖康王妃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忠恭의 딸이며, 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閔哀王은 바로 충공의 아들이다. 민애왕은 즉위하고서 충공을 追贈하여 宣康大王이라 했다. 上大等 均貞 神武王의 아버지로서, 왕이 成德大王으로 추봉했다 의 後夫人 照明 또한 충공의 딸로서, 憲安王은 이 부인이 낳은 사람이다. 崔致遠이 撰한 ‘智證大師 寂照塔碑序’에 興德王代 일을 기록해 “興德大王이 왕위를 계승하시고 宣康太子는 監撫했다”고 했다. 충공이 추봉되기 이전의 生時였기 때문에 태자라고 기록한 것일까. 충공은 헌덕왕대에 이미 角干이 되었으며, 《三國史記》의 그 뒤 閔哀王條에 大阿干 角干은 제 2位이며 大阿干은 제 5位이다 으로 기록된 것은 그 이유가 자세하지 않다. 그렇지만 뒷 條는 죽은 뒤에 追記된 것으로서 그 位階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를 가지고 저 忠恭과 이 忠恭을 별개의 인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三國遺事》에서는 충공을 忠孝 또는 重恭으로 썼는데, 이는 글쓴이의 편의에 따라왔을 뿐이다. 下代에 추봉을 받은 왕의 아버지는 매우 많지만 모두 諡號를 大王으로 칭했다. 忠恭 또한 宣康大王으로서 僖康王代 기사에서만 葛文王이라 칭하고 그 諱를 사용했다. 하대에 갈문왕 칭호는 이외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상 열거한 사람 중에서도 갈문왕의 칭호를 가졌는데 역사서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星湖 李瀾이 주장한 “同姓이면 癩이고 異姓이면 葛”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은 이상을 통해 분명해졌다. 그러면 갈문왕의 칭호는 追封된 것인가, 生時의 封號인가, 아니면 양자를 혼용한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추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인물로 骨正 葛文王과 國飯 葛文王이 있다. 《三國遺事》가 文興大王을 文興 葛文王이라 한 것도 바로 추봉의 사례이다. 生時의 封號였다고 짐작되는 사례로 阿道 葛文王이 있다. 기타 대다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갈문왕 칭호에 諡號를 덧붙였다는 기사는 첨해왕이 아버지 骨正을 추봉해 世神葛文王으로 삼았다는 예가 있다. 그렇지만 新羅 上古期에 왕에게 시호를 올리는 것 같은 典禮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에서 왕에 대한 시호가 太宗武烈王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필자가 누차 주장한 바이다. 하물며 상고시대로 불리는 尼師今·麻立干 時代에 갈문왕이라는 시호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上古期·下古期의 국왕 이름은 生時의 美稱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국왕 이름이 전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2글자로 고쳐졌기 때문에 原語를 풀어내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 5~6의 경우는 그 意義를 추정하기가 어렵지 않다. 국왕조차 시호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왕 자신의 칭호조차 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으로 칭한 上古期에 葛文王만 시호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나는 갈문왕의 칭호가 追封이라는 점을 의심한다. 追封과 같은 思想과 典禮가 있었다면, 이런 예우를 받지 못한 왕의 친족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았던 셈이다. 신라 문화를 고찰하건대, 상고기에는 이러한 思想, 이러한 典禮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욱이 中古期 즉 法興王 이후 眞德王까지의 사이에는 중국의 문물이 크게 수입되어 사상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典禮도 갖춰졌다. 그러므로 追封에 대한 것도 시행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中古期 갈문왕 중에는 추봉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武烈王이 추봉한 文興王도 세간에서는 文興葛文王으로 불렸으리라 짐작된다. 黃頤齋가 갈문왕은 곧 死王(‘死’는 한국어 Chukul이며, 葛文의 訓讀은 Kal-kul이다)이라고 주장한 것도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현존하는 창녕 眞興王 巡狩管境碑에는 葛文王이라는 글자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세 글자의 앞뒤가 마멸돼서 불분명하지만, 같은 종류의 비인 黃草嶺에 있는 것, 北漢山에 있는 것으로 유추하건대, 갈문

왕은 당시 하례하던 新羅 貴人 중에서 최고이며 특수한 位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미 죽은 자를 이렇게 기록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중고기에 이 칭호를 추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추봉에만 한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三國史記》·《三國遺事》에 의하면, 상고기에 역대 왕으로도 기록되지 않고 葛文王으로도 불리지 않은 3왕이 있다. (1) 許婁王, (2) 摩帝國王, (3) 支所禮王이 그들이다. 허루왕이 《三國遺事》에서 辭婁王으로 잘못 표기된 점은 이미 언급했다. 건국 초의 王系 전설은 복잡하고 혼란하여 잘 判明되지 않는다. 막연한 전설을 채용해 정연한 틀에 박아넣어 구성했던 것이니, 그 기사로 許婁王과 許婁葛文王의 차이를 논함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기사의 혼란상으로 추측컨대, 허루왕이라든가 허루갈문왕이라든가 하는 것은 동일한 칭호로서, 허루왕이라는 것은 차라리 보통명사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결코 한 사람이 아닌 것을 후대의 史家は 그 글자가 假字임을 모르고서 글자에만 근거해 한 사람의 王名으로 삼은 것 같다. 許婁는 葛과 같은 것이다. 許婁王은 ‘葛文王’에서 ‘文’字가 생략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支所禮王에 대해서는 언어학적인 설명이 아직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왕은 실재했든가 혹은 갈문왕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摩帝國王은 《三國遺事》에 기록된 인물로서 《三國史記》에는 摩帝葛文王이라고 한 사람이다. 갈문왕을 국왕으로 표기한 것이다. 國이라는 말은 아마 戰國時代에 동방으로 전해져 高句麗·新羅에서는 忽 등의 글자를 빌어 표시하는 말이 되고 일본에 들어와서는 kuni라는 말이 된 것 같다. 忽은 현대의 훈이 hul이지만, 古훈이 kol이었다는 것은 《三國史記》에서 骨正을 忽爭으로도 쓴다고 한 점에서 명백하다. 이것은 일본의 字훈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k훈이 h훈으로 변화한 것으로서, 그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라 하겠다.

외국에 전해진 중국어는 文字보다 앞서 전해진 것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문자보다 먼저 전래된 언어는 이에 해당하는 문자가 전래되기 이전까지 변화하여 새로 들어온 字음을 가지고서는 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火’字의 훈이며 ‘弗’字의 음인 pul, ‘伐’字의 음인 pöl로 표시된 ‘地方’ 또는 ‘國’의 뜻을 가진 한국 古語와 같은 것도 ‘國’이라는 중국어가 변이한 것으로서, ‘忽’ kol 로 표시된 말과 변이의 정도가 다른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짐작된다. 語尾의 k가 l로 변한 예는 ‘ ’의 字音으로 표시된 지명이 ‘達’의 字音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

摩帝國王의 ‘國’은 葛文의 ‘葛’[kal] 이 國이라는 말 kol에 가까운 점 때문에 끼워 넣어진 것 같다. 앞서 언급한 許婁라는 글자도 바로 이와 같이 ‘葛’字를 假字로 하는 말에 假用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語尾에 ll[ㄹ ㄱ] 가 있고 ll[ㄹ]을 발음할 때, 나머지는 입 속에 머물러 두고 l과 k를 교대로 발음하는 말이 많다.

나는 처음에는 葛文王의 葛이 國이라는 新羅語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어 假字일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다시 스스로 이를 고치게 되었다. 葛 kal 字를 빌어 표시한 말은 骨 kol 字를 빌어 표시한 친족 가족의 뜻을 가진 말일 것이다. 즉 骨品の 骨로 볼 수 있다. ‘文’은 字音 mun의 假字로서 신체의 뜻, 즉 현대어의 mom을 표시했을 것이다. 따라서 葛文은 친족의 몸을 뜻할 것이다. 葛文王의 ‘王’字는 중고기에 한자의 사용이 유행할 때, 아마도 法興王이나 眞興王 때쯤 漢譯된 것으로서, 백제에서는 ‘君’字를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雞彌’[님]라 칭하고 신라에서는 ‘錦’ 혹은 ‘스’의 假字를 사용해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백제 蓋婁王·蓋鹵王의 이름은 [《日本書紀》 雄略天皇 5년 4월에 나오는] 加須利인데, 加는 大, 須利는 率의 뜻일 것이다. 고구려의 朱

留도 역시 率의 뜻이 아닐까 한다. 다만 내가 종래에 儒理를 朱留와 동일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儒는 훈이 ‘日+朱[우]’의 半切式으로서, 古훈은 奴·弩·怒의 字音에 가까웠다. 儒理를 弩禮라고도 쓰고 奴斯只(日本 史書에 나오는 怒受利)를 景德王이 儒城縣으로 고친 것은 儒와 奴·怒의 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다. 駕洛國 王名인 ‘居登’과 居叱彌의 ‘居叱’(‘今’字를 빌어 쓰기도 함)은 본래 같은 말로서 ‘大’의 뜻일 것이다. 신라의 許婁도 전에는 葛文의 ‘葛’과 같은 말로 인정했었지만, 이 말은 혹은 國이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許婁는 백제의 己婁와 같은 말로서 蓋婁·蓋鹵와는 다른 말일 것이다.

한국의 현대어에서는 왕을 nim-keum이라 한다. keum은 일찍이 말한 것처럼 일본어의 キミ[키미]와 기원이 같은 말로서, 바로 중국어의 君이라는 말에서 나왔을 것이다. 假字로서 勿·彌가 서로 통용되며(加洛 居叱彌王을 今勿王으로도 표기한다), 勿·文 또한 통용된다. ‘勿’字를 빌어 표시한 水가 일본어에서는 ミ[미]가 되며, ‘文’字를 빌어 표시한 ‘몸’이 역시 일본어에서 ミ[미]가 되므로, 일본어의 키미는 한국의 옛적에 사용되던 ‘위대한 몸’이라는 뜻의 단어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천박한 내 연구의 현재 수준에서는 이를 스스로 부정했다. 또한 한국 古語의 干岐 및 이와 같은 말인 干도 중국어의 ‘君’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아직 설을 정립하지 못한 관계로 後日의 연구를 기대하려 한다. 이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干岐와 カミ[카미]가 같은 말이라는 사실의 일례를 들 수 있다. 《三國史記》 堤上傳에 州干·村干이라는 말이 있다. 州干은 일본어에서 國守라고 쓰며 守는 カミ라고 풀이하는데, カミ는 干岐일 것이다.

葛文王은 中古期 法興王代부터 眞德王代까지 에 生時의 칭호와 죽은 뒤의 追封 王號가 되었지만, 上古期에는 生時의 칭호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 史籍에 追封으로 기록한 것은 후세의 思想으로 修飾된 것으로 생각된다. 갈문왕 칭호는 왕의 유력한 친족이 수여받은 位號로 짐작된다. 왕의 친족으로서 이 位號가 없던 자 중에는 일찍 사망해 이를 받지 못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 眞平王의 生父 銅輪太子 같은 경우는 혹은 이 중 한 사람이 아닐지, 혹은 中國風으로 太子에 추봉되었기 때문에 갈문왕 칭호를 전하지 않는 것인지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中代(武烈王代부터 惠恭王代까지)부터 下代(宣德王代 이후)에 이르기까지 사상과 사회상태의 변천과 함께 갈문왕의 대상도 변화한 것 같다. 중국 사상의 영향으로 尼師今·麻立干도 王號로 대치되고 왕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을 초월하게 되어 王과 貴人의 중간에 놓였던 존재는 소멸해 버렸다. 대신 前代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追封이 유행했으며, 계승한 왕 이외에 왕호를 칭한 사람은 이 追封王만 남게 되었다. 이제 갈문왕 칭호는 추봉왕만의 名詞가 되었던 것 같다. 興文葛文王·忠恭葛文王의 경우는 추봉왕이다. 忠恭葛文王이라 쓰고 宣康葛文王이라 쓰지 않았던 下代에 있어서도 사회상태는 중국풍으로 철저히 변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충공갈문왕으로 전하기도 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이는 호칭의 편의에 따른 그대로의 전승일 것이다. 갈문왕이란 말은 上代 중, 특히 上古期·中古期에는 生存 貴人 중에서도 특수하게 존귀한 자에 대한 호칭이었지만, 下代에는 의미가 불확실한 古語가 되어 追封王의 칭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三國史記》가 갈문왕을 추봉왕에 대한 칭호라 한 것은 신라 中代末부터 변화하기 시작해 下代에 이르러 고정된 語義를 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附言] 《史林》 제7권 제1호 大正10년 1월호 에 발표한 拙稿 <新羅骨品考> 중의 葛文王에 대한 내용을 본고에서 정정한다. 또한 <骨品考>에서 《三國遺事》 王曆篇에 “眞德女王 已上 中古聖骨, 已上 下古眞骨”이라 되어 있는 것을 “‘已上中古’는 ‘已上 上古’이고, ‘已上 下古’는 ‘已下 中古’의 착오일 것이며, 《三國遺事》의 이 기사는 《三國史記》에 근거를 두었을 것 등등”이라 해석한 것은 완전히 오류였다. 《三國遺事》는 智訂麻立干 智訂은 《三國史記》에서 智證으로 표기되었다 까지를 上古로 삼고, 法興王부터 眞德女王까지를 中古로 삼았다. 太宗武烈王 이하는 下古로 하여 시대를 구분했다. 《三國史記》는 진덕왕대까지 28대를 上代로 삼고 武烈王부터 惠恭王까지의 8대를 中

代로 삼고 宣德王 이하를 下代로 삼았으니, 시대구분 방법을 전혀 달리 한 것이다. 그렇다면 《三國遺事》 왕력편 진덕왕조에서 “已上下古眞骨”이라 한 ‘已上’의 ‘上’은 ‘下’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책 智訥訂麻立干條에 “已上은 上古로 하고 已下는 中古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聖骨王이 중고기 왕만의 칭호가 아님은 《三國史記》가 “國人이 始祖 赫居世로부터 眞德王에 이르는 28왕을 聖骨이라 한다 …”라고 한 점에서 명백하다. 따라서 다행히도 내 부주의에 의한 이 오류는 논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고에서 上古·中古라고 한 것은 《三國遺事》의 시대구분을 채용한 말이며, 上代·中代·下代라고 한 것은 《三國史記》의 시대구분을 따른 것이다. 또한 같은 글 23쪽 하단에서 “《三國遺事》 南解王條에서는 誠操<sup>1)</sup>를 誠標로 표기했는데, 誠操가 誠標의 오기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내가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집필함으로써 범한 중대한 오류로서, 《三國遺事》가 誠操를 概標로 표기한 것을 誠標로 표기했다고 잘못 언급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三國遺事》 권1, 南解王條에는 誠操를 概標로 표기했다. ‘誠’을 ‘概’로 고친 것은 잘못된 것 같지만, 이에 의해 ‘操’가 곧 ‘標’라는 점은 미루어 알 수 있다. 誠操는 誠標의 오기일 것이다.

또한 신라의 假字法을 보면 ‘文’의 字음을 표시할 때 訓 없이 ‘汶’字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葛’은 支所禮王의 ‘支所禮’에 가깝고 ‘文’의 訓 kul이 吉士의 ‘吉’에 가까운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葛文의 어의는 아직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汶’은 ‘勿’字와 마찬가지로 물[水]이라는 말을 표시한 假字로 사용되었다. 水[mul] 라는 말은 mun([汶]) 과 통하며, 己汶·基汶의 mun은 물[水]이라는 뜻일 것이다. 《駕洛國記》에 “居叱彌王은 혹은 勿이라고 한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勿은 彌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汶의 假字로 표시된 水[물]와 身[몸]이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모두 ‘ミ’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伊梨柯須彌를 泉蓋蘇文이라고 표기하므로, ‘文’이 ‘彌’라는 것은 유래가 오랜 것이다.

끝으로 kol, kal이란 말의 변이에 대해 소견을 밝혀보면, 이 말은 ‘氏’

1) ‘誠操’의 ‘操’는 원래 본문에서는 ‘木’변이다. 그러나 이는 《삼국사기》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판단해 바로잡았다. 이하 다음 문단까지 보이는 ‘操’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이다(역자).

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崔世珍의 《訓蒙字會》에서는 氏를 kak-si로 풀이했다. kak은 kal이 변한 것이며, si는 그 字音이다. 字音과 字訓 혹은 字訓과 字音, 즉 訓音을 합쳐 한 단어로 만드는 예는 한국어에서 아주 흔한 일이다. 이 kak-si도 그 일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大正 11년(A.D. 1922) 4월 20일—

(《藝文》 제13년 제5호 大正 11년 5월)